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4월 2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활짝 웃으며 달리기를 하고 있다.

부산진구,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 우뚝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의 양육과 성장이 단지 그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이웃·학교·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돕는 공동체적 과정이라는 뜻이다. 맞벌이 증가로 육아와 경제생활 병행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실정에 맞아 떨어지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 '온 마을'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부단히 육아 정책을 추진해 온 부산진구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섰다.

부산진구가 부산시가 주관하는 '2026년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올해는 4년 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부모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틈새돌봄'과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눈에 띈다. △야간 연장 운영 프로그램인 '별빛노리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4년 연속 선정
야간 연장 등 '틈새돌봄' 내실화 박차
2023년 이후 3년 연속 출생아수 1위
혼인도 3년간 52% 급증, 부동산 1위

터' △주말 육아용품 나눔장터인 '쫄물딱마켓' △맞벌이 가정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사업도 풍성하다. △부산진 힐링투어버스 △찾아가는 팝업 물놀이터 '뛰어 놀아야 재미지!' △부산진구 꿈동이 동요제 등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웃음 한 컷, 사랑 한 장' △어린이 유괴 예방 안전 캠페인을

병행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허남식 부구청장은 "4년 연속 공모 선정은 부산진구의 육아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라며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충에 귀 기울여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전국 최고의 육아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육아 지원 정책에 최근 3년간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구로 우뚝 섰다. 국가통계포털 집계에 따르면 부산진구 출생아수는 2023년 1,615명, 2024년 1,613명, 지난해 1,900명으로 3년 연속 부동산의 1위를 차지했다. 또 10년 넘게 부산 1위를 지키고 있는 혼인 건수의 증가율 또한 지난 2022년 1244건에서 지난해 1898건으로 3년만에 52.5%나 급증, 부산지역에서 압도적 혼인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문의 : 가족지원과 가족친화계(605-4366)

학업의 꿈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돕는다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달 초 응시자 53명 적극 지원 학습도우미 집중프로그램 운영

어떤 이유 때문이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부산진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안보경)는 4월 4일 실시된

2026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53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도시락과 간식 등 응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험장을 찾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 상담 및 학습지원 서비스로의 연계를 도왔다.

이에 앞서 센터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집중지원반 프로그램'

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했다. 모의고사와 해설 중심 수업으로 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취약 과목 보완에도 도움을 줬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 (605-851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전점검이 최선이죠

어린이집 등 소속 22대 점검

부산진구는 4월 13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민·관·경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통학차량 22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교통행정과 △부산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어린이 관련 기관의 시설장들이 참여해 통학버스 구조·장치 결함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지적사항에 따른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계(605-4375)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 개선해 드립니다

8가구 대상, 6월 19일까지 신청

부산진구는 올해 저소득 아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아동모두 행복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공모'에 부산진구가 3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진행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거 위생 및 환

경을 개선해 준다.

2025년 총 8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18세 미만) 자녀와 3개월 이상 해당 주거지 거주 가구(중위소득 75% 이하 부산진구민)로 6월 19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복지정책과 자활주거계(605-4335)

어린이 '새싹들', 꽃으로도 때리지 않아야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산진구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등·하원

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배우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부산진구는 어린이집별 맞춤형 컨설팅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계(605-4376)

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원	5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70%의 국민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자유 은행 영업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사용방법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사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류·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 제외

이의신청 '26.5.18.(월)~'26.7.17.(금)까지 접수 ※ 7.31.(금)까지 처리

“안전은 행복”... 6월 19일까지 안전 취약시설 81곳 살핀다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잠재 위험지 대상 민·관 합동...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 동원 구민 신고 반영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도입

안전하다고 무조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안전 없이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해방기와 장마철 들머리가 겹치는 봄철과 초여름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부산진구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2026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공사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 81곳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간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심층 점검을 병행, 보다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이 직접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점검에 반영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안전도시과 복구지원계 (605-4122)



4월 21일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열린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합동훈련’ 현장.

제4회 부산진구 안전체험박람회 성료

부산진구는 4월 4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제4회 부산진구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했다.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익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문의 : 안전도시과 안전관리계 (605-4642)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 자율안전점검표 잘라서 사용하세요

2026 집중안전점검(기간 2026.4.20.~6.19.) 가정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집 안전을 확인해보세요!

전기안전



전기 제품과 콘센트 주변의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전기 화재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원차단형 멀티탭은 전기 사용량이 과다할 때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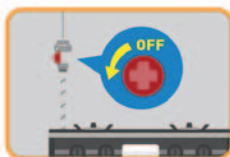


차단기 손잡이가 내려지지 않으면 누전 시 전기가 차단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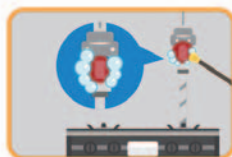
가스안전



가스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리면 재빨리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밸브를 열어두면 가스가 새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꼭 잠가야 합니다.



배관 이음부 주변에 비눗물을 발랐을 때 거품이 나지 않나요? 거품이 나면 가스가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물안전



지진이 나가나 하면 높은 곳의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 다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나는 “딱딱”하는 소리는 건물이 손상되어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창문과 출입문을 여닫기가 어려운 것은 건물이 변형되어 문틀이 휘둘러진 것일 수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와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안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독형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소화기가 없다면 꼭 구입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두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위치를 알아두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지 않습니다.

Check List!

전기안전 점검항목	네	아니오
냉장고, 전기제품 콘센트 주변의 먼지 등을 청소하였는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원 자동 차단용(스위치)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누전차단기 앞쪽의 황색 또는 적색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내려가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안전 점검항목	네	아니오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구 주변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레인지 사용 후 밸브를 잠그셨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관 이음부 주변에 비눗물을 발랐을 때 거품이 나지 않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안전 점검항목	네	아니오
무거운 물건들을 낮은 곳에 배치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안나고 조용한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창문과 방문을 열고 닫기가 수월한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승강기 내부에 검사합격 증명서와 비상연락처가 부착되어 있나요? (승강기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안전 점검항목	네	아니오
방과 거실에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에 있는 소화기는 유효기간(10년) 이내의 것인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 대피공간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 않나요? (공동 주택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356회 임시회 상반기 규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엄정 선거업무 만전 당부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제35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규정질문을 실시했다.

3월 26일 제1차 본회의 개최식에서 박현철 의장은 “오는 6월 예정되어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의를 담아내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현인 만큼, 우리 의원들 역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차분하고 엄정한 자세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356회 임시회는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31일에는 상임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규정질문을 실시하고, 4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제356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욱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2026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부산진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시민공원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규정질문

한갑용 의원(부암1·3동) [일문일답]

1.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 요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7시~9시 사이 진료가 가능한 ‘출근 전 어린이 병원’ 도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력 확보와 예산 장벽이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가? 또한 기부금을 단순히 적립만 하지 말고, 주민 수요가 높은 지정 기부 사업(소아 의료 등)으로 적극 전환해야 함.

▶답변 요지: 현재 약 3억 6,7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음. 올해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등 기부금이 채감될 수 있는 사업과 ‘출근 전 어린이 병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정 기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 및 수행기관 확대 관련

▷질문 요지: 노인 일자리 수량은 늘었으나, 단순 환경 정비(공약형) 위주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활용한 ‘역량 활용형’ 일자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행기관이 오히려 줄어들어 특정 복지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수행기관을 다변화하고 구청이 직접 운영(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답변 요지: 정부 기조에 맞춰 역량 활용 사업 비중을 확대 중이며, 현재 일괄 개 수행기관의 업무 과부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향후 신규 기관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을 검토하고, 구청 직영 전환이나 조직·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성낙욱 의원(부전1동, 양정1·2동) [서면질문]

1.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취약세대 발굴 및 대응체계 점검

▷질문 요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및 화재취약세대 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는?

▶답변 요지: 화재취약세대를 발굴해 소방서에 명단 제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 중이며 화재 발생 시 구호물품·임시숙소·재해구호기금 즉시 지원하고 있음.

2.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운영실태와 정책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 요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돌봄, 상담, 심리정서 지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통합지원서비스 연계 현황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답변 요지: 통합서비스(복지시설 연계 돌봄·상담·자립 프로그램 등)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해 제공되며, 현재 부산진구 내 해당 시설은 없는 상황으로, 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 분기별 혜택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

3.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안심계약매니저 운영 실태 및 정책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 요지: 전·월세 사기 피해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을 초래. 안심계약매니저 운영 실태·이용 현황 및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은?

▶답변 요지: 공인중개사를 안심계약 매니저로 위촉해 전세사기 예방상담·환경분석·현장동행·정책안내 4대 서비스를 무료 제공 중이며, 2026년부터 서비스 고도화 및 대학·기관 협의회(MOU)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5분 자유발언

▲노인일자리와 가족 참여를 통한 '부산진구형 녹지돌봄체계' 제언 (성낙옥 의원/부전1동, 양정1·2동)

동네 산책로와 가로수 화단에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쌓여도 관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구석이 여전히 많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제는 단순 투입이 아닌 구간별 책임 관리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계가 필요하다. 생활권 녹지 중심의 구간 책임 관리제로 보완·개편하여 어르신들이 매일 같은 구간을 꾸준히 돌보는 생활 관리인의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하며, 평일 노인일자리 관리와 주말 가족 참여를 결합한 '부산진구형 녹지 입양제'를 도입해 일상 관리와 주민 참여의 이중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공원과 화단을 청소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야 한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실효성 제고 요청 (김민경 의원/비례대표)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결식 우려 노인을 발굴·지원하고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정성껏 조리·배달된 반찬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저소득·거동불편 노인들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미역 줄기, 쥐포, 연근, 푹 익히지 않은 채소 등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제대로 못 먹어도 설문에는 만족한다고 답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잘 설명해 준다. 급식기관 회의 소집을 통한 식단 개선 협의, 향후 급식기관 선정 시 노인적합형 식단 구성에 평가 가점 부여, 연 2회 현장점검의 실질적 운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공정선거를 위한 지역 공적 현장조직의 선거중립 확보와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성 제언 (한일태 의원/개금1·3동)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등에 대해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경우 행정조직과 지역 조직망이 결합해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제한 기간만 형식적으로 충족한 채,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공적 직위로 돌아오려는 행태다. 집행부는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명시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했던 자가 재참여하거나 재위촉되려는 경우 조례의 취지와 주민 신뢰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지역 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분희 의원/당감1·2·4동)

당감2동은 가야역 철도 부지로 인해 인근 동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형 구조를 갖고 있고 버스 정류소도 멀어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복지관 업무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되면서 실제 생활권이 가야동·범천2동 방향으로 형성된 당감2동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접근성이 낮아졌다. 복지서비스는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 취약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평생교육과의 배달강좌, 동 주민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부서 간 연계로 서비스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아파트 게시판·경로당·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정책 홍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양정동 정비사업 공사 현장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 및 중재 촉구 (성현옥 의원/부전1동, 양정1·2동)

양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양정로 약 80m가 임시 폐쇄되어 극심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구간은 통학 학생과 스쿨버스가 집중적으로 오가는 길이다. 학생 안전을 위해 공사 시기를 방학으로 조정하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 양정1가로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토공사 시작 이후 인근 요양병원과 공동주택에서 건물 균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집행부는 교통 정체 완화 대책 수립, 보행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 시공사와 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로시설 정비와 위험 축대 선제 점검을 통한 우수기 재난 예방 (김진복 의원/부전2동, 범천1·2동)

우수기 재난은 발생 후 수습이 아니라 오기 전에 막는 행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지형이 많은 부산진구는 배수로와 하수구에 낙엽·토사가 쌓이기 쉽고, 노후 축대와 옹벽의 균열은 집중호우 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우수기 전에 상습침수구간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 전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후 축대와 위험 옹벽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험도 분류에 따른 긴급보수와 중장기 정비계획을 실행해야 하며, 통장협의회·자율방재단 등과 연계한 빗물받이·배수로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결과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그 가치에 맞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강도희 의원/비례대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총 52점이지만 관리 상태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상징물 '미래'는 페인트 박리 현상이 심각하고, 서면 특화 거리의 '우정'은 상판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지난해 보수 실적은 52점 중 단 3점에 그쳤다. 유지보수 예산을 22.2% 증액했음에도 유지관리 수준은 형식적 점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서면역 5번 출구 앞 '6월 민주항쟁 기념 표지석'은 건립 주체와 무관하게 우리 구 관리 체계 안에서 보존되어야 마땅한 역사적 상징물임에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 대상 재정비,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과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 촉구 (오우택 의원/연지동, 초읍동)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75,575건 중 15%인 8,942건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대에 부과된 과태료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인도 등 6대 구역은 단속 유예 시간대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주차행정의 목적은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 위반의 사전 방지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 6대 금지구역과 유예 제도의 예외 규정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소화전 주변 연석, 교차로-버스정류장 주변 도색 등 6대 금지구역의 시인성 강화와 상가 입구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현장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의정 포토뉴스



행정문화위원회,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방문

부산진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손재호)는 3월 30일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심사와 관련하여 당감동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 채택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철현)는 4월 13일 부산진구의회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부산진구의회는 4월 6일 의정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카페거리·공구길·사잇길, '전포 청년상권' 통합 브랜드로 뜬다

청년친화 부산진구, 3대 상권 상인회와 협약 '통합 청년상권운영단' 출범, 브랜드화 박차

'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가 전포 일대 청년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운영에 나섰다.

부산진구는 4월 초 '전포카페거리' '전포공구길' '전포사잇길' 등 3대 상권 상인회와 함께 '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2026년 통합 청년상권 운영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포 청년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전포 일대 주요 상권을 하나의 '전포 청년상권' 통합 브랜드로 구축하고, 청년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전포사잇길을 중심으로 청년상권운영단을 시범 운영하며, 브랜딩 콘텐츠 개발과 팝업



·전시·문화행사 등을 통해 청년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전포카페거리·전포공구길·전포사잇길 3개 상권을 통합해 브랜드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공동 행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가, 예술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팝업 행사와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 청년상권 브랜드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진구와 3개 상인회는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협의회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과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상권인 전포 일대가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일자리산업과 청년지원계(605-6342)



부산진구 직원들은 4월 14일 구청 다복실에서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청렴 으뜸도시' 부산진구 기대하세요

청렴주간 다채로운 행사

1기 '청년친화도시'이기도 한 부산진구가 '청렴 으뜸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진구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 동안을 '2026 청렴문화 확산 주간'으로 정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구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우선 청렴 주간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간부 공무원과 MZ세대 청렴동아리 '청렴반디' 직원들은 형식적인 구호 대신 '갑질은 빼고, 존중은 더하고, 청렴은 무한대' 등 구체적인 수칙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서 9일에는 연극과 간담회를 결합한 청렴 소통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허남식 부구청장과 청렴리더 50명은 '청렴 로드'를 조성하고, 입장하는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격식 없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어 상연된 참여형 연극 '막이 오르면, 부패는 퇴장'은 업무 중 마주할 수 있는 부당 지시와 관행적 청



4월 9일 열린 직원 참여형 청렴 연극의 한 장면.

탁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16일에는 조직 내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청렴 골든벨'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200여 명의 부산진구 직원들은 '청렴주간은 2주 동안이었지만, 청렴 실천은 365일'을 외치며, 일상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허남식 부구청장은 "이번 청렴주간에 보여준 열기가 청렴도 1등급 도약을 향한 힘찬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통해 건강한 공직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감사담당관 청렴조사계(605-4041)

"AI 전화로 통합돌봄 대상자 안부 확인"

부산진구는 4월 3일 (재)행복커넥트와 'AI 안부드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안부드림'사업은 '부산, 함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AI 전화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

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촘촘한 돌봄 안 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계(605-4781)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깨끗한 주거환경, 안전한 미래!

- 1 사업 개요**
노후 슬레이트 지붕해체·차리및 지붕/방수 지원
- 2 지원 대상**
주택 및 축사 · 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 3 지원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주목: [취약 전액 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동]
 - 비주목: 200㎡ 이하 전액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붕 개량
 -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동
 -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방문 신청 ▶ 구(군)청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
- 5 문의처**
구군 환경위생과 | 행정복지센터



부전1동(동장 설창수)은 4월부터 가야교회(위임목사 박남규) 후원으로 부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추연종)와 함께 ‘부전1동 함께 밥상’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부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부영, 민간위원장 한수홍)는 지난 3월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생명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리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연지동(동장 박미옥)은 4월 2일 동주민센터에서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소속 노인맞춤돌봄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와 함께 민관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읍동(동장 정간호)은 3월 25일 초읍 도란도란하우스에서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부산진구치매안심센터, 가족사랑요양병원 등과 함께 ‘건강통합돌봄행사’를 개최했다.



양정1동(동장 오명옥)은 4월 9일 원불교 양정교당(교무 권화정)이 ‘원불교 열린날, 은혜의 김치니눔’ 행가 일환으로 당일 담근 김치(개별 용량 3kg) 50박스를 기탁받았다.



양정2동(동장 김중운)은 3월 말 신흥교회(담임목사 정용달)와 협력해 거동 불편 나 홀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도 확인했다.



전포1동(동장 정정란)과 전포1동 MG새마을금고(이사장 이용식)는 4월 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출생아는 이율 10~12%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포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추홍미)는 지난 3월 31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동장 신미선)에서 미역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암1동(동장 노진숙)은 4월 8일 부산진구보건소와 함께 ‘철길 건강이음터’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매월 의료 사각지대 철길마을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건강 서비스이다.



부암3동(동장 하정희)에서는 내 집(점포) 앞 내가 쓰기 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 초 관내 불결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통장, 주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당감1동(동장 황서정)은 지난 3월 26일 당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원찬)과 함께 당감선형공원에서 ‘온(溫)동네 이동상담소’를 열고 개인 맞춤형 복지상담 등을 진행했다.



당감2동(동장 송경숙)은 지난 3월 26일 주민센터에서 지역 치안 강화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부산진경찰서와 함께 ‘치안 톡톡 투게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감4동(동장 윤미숙)은 지난 3월 24일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백양푸른채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복지 이동상담실 ‘찾아가는 건강복지 정(情)담소’를 운영했다.



가야1동(동장 신보민)은 4월 3일 봄 행락철 맞이 ‘내 집(점포) 앞 내가 쓰기’ 캠페인 및 불결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주민과 통장, 동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가야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서경은)는 4월 9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선 총 13세대가 생필품을 전달받았다.



개금1동(동장 백채란)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범식) 위원들의 복지 역량 강화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지킴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실시했다.



개금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진용)는 4월 9일 개금2동에 성금 82만100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3월 28일 개최한 ‘봄, 개금에 내리다’ 벚꽃문화축제의 수익금이다.



개금3동(동장 박성운)은 지난 3월 말 백양경로당에서 ‘동네 한바퀴 건강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상담실은 개금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건강증진센터가 진행했다.



범천1동(동장 김주영)은 지난 3월 말 국제표준안전재단 부산진구지회(지회장 류미점)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불고기 700g 30팩을 후원받아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범천2동(동장 한정민)은 4월 2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영란 강사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4월 넷째주 백양산 애진봉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나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정유찬



철쭉 피고 벚꽃 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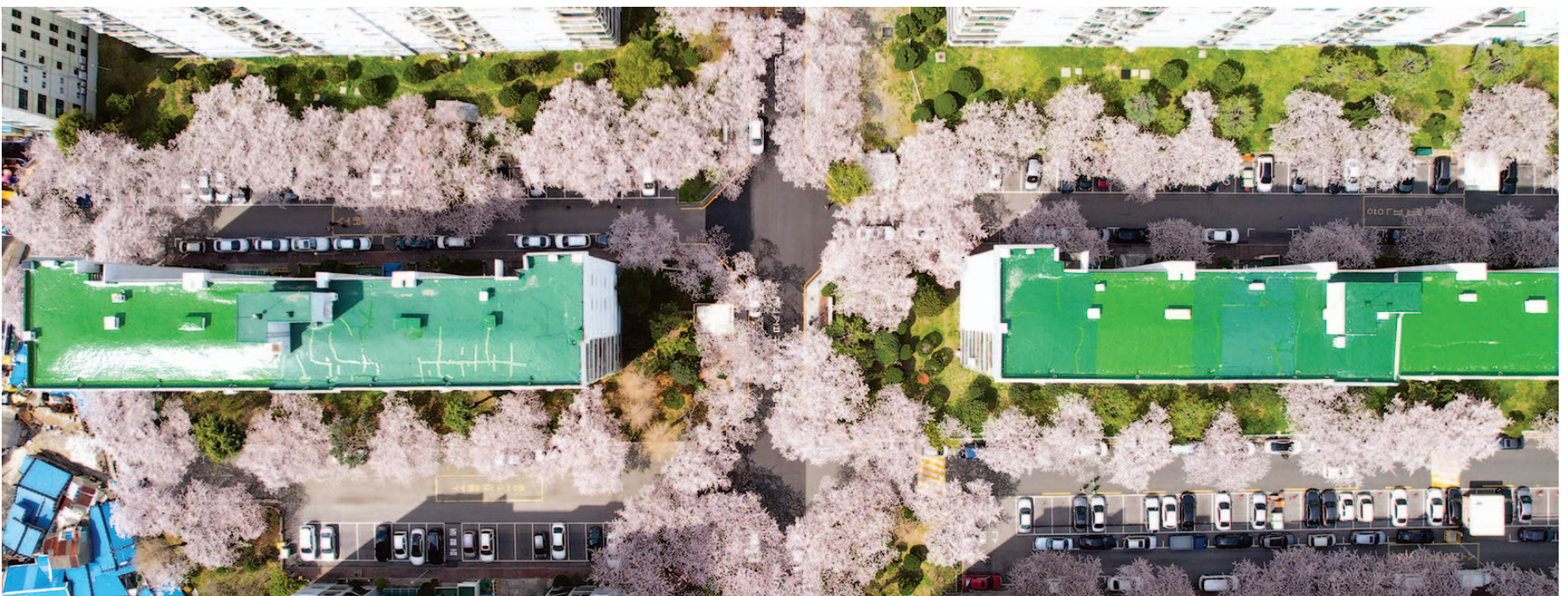
우리의 봄은 진행 중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인근 벚꽃터널



개음벚꽃문화길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삼익아파트 단지 벚꽃 군락 드론 촬영 ©정유찬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백양산 나들숲길 10코스 걸어봐요

백양산 나들숲길 10코스 상세 안내도



<p>1코스 청풍길</p> <p>5.4km/90~120분/396kcal</p>	<p>2코스 새암길</p> <p>4.4km/90~120분/330kcal</p>	<p>3코스 청림길</p> <p>3.4km/70~100분/263kcal</p>	<p>4코스 해오름길</p> <p>3.6km /70~100분/264kcal</p>	<p>5코스 선암길</p> <p>3.1km/70~100분/260kcal</p>
<p>6코스 꽃내음길</p> <p>2.3km/50~80분/190kcal</p>	<p>7코스 새소리길</p> <p>2.0km/50~80분/185kcal</p>	<p>8코스 물맞이길</p> <p>2.5km/60~90분/198kcal</p>	<p>9코스 하늘빛길</p> <p>2.5km/60~90분/198kcal</p>	<p>10코스 솔바람길</p> <p>2.3km/60~90분/190kcal</p>



백양산 나들숲길 10코스

- 1코스 청풍길** 5.4km/90~120분/396kcal
성지곡삼환아파트-1초소-찬물샘약수터-습지생태학습장-석천약수터-산림욕장입구-옥천약수터갈림길-성지교-어린이대공원입구
- 2코스 새암길** 4.4km/90~120분/330kcal
어린이대공원입구-성지교-편백나무갈림길-바람고개-학수천약수터-숲속나무생태학습장-초연중학교
- 3코스 청림길** 3.4km/70~100분/263kcal
초연중학교-숲속나무생태학습장-학수천약수터-바람고개-해오름전망대-헬기장-연인길-산불감시초소-편백쉼터-공동묘지-연지체육시설-연지경동아파트-동원아파트
- 4코스 해오름길** 3.6km /70~100분/264kcal
동원아파트-경동아파트-연지체육시설-공동묘지-편백쉼터-산불감시초소-연인길-헬기장-해오름전망대-바람고개-임도-천안사-협성피닉스타운
- 5코스 선암길** 3.1km/70~100분/260kcal
협성피닉스타운-천안사-산불감시초소-선암사-산불감시본부초소-백선약수터-당감주공아파트
- 6코스 꽃내음길** 2.3km/50~80분/190kcal
당감주공아파트-백선약수터-당감3동시비-임도(산불감시초소)-용골약수터-백양터널
- 7코스 새소리길** 2.0km/50~80분/185kcal
백양터널-용골약수터-임도(산불감시초소)-옥수약수터-배드민턴장-옥정교-당감동일스위트
- 8코스 물맞이길** 2.5km/60~90분/198kcal
당감동일스위트-옥정교-배드민턴장-옥수약수터-임도-양묘장-꽃동산-임도(우드빌)-개금우드빌
- 9코스 하늘빛길** 2.5km/60~90분/198kcal
개금우드빌-임도-꽃동산-헬기장-개금체육시설-임도(반도보라)-돌탑-돌탑-개금반도보라아파트
- 10코스 솔바람길** 2.3km/60~90분/190kcal
개금반도보라아파트-돌탑-돌탑-임도-개금체육시설-사상구갈림길-계림초등학교

부전1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리동네 방문특공대' 운영

부전1동(동장 설창수)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방문특공대'를 조직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부전1동주민센터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마을건강센터 등의 탄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주민 만남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복지 사각지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방문특공대는 월평균 2차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와 위기가구를 방문해 '방 문'을 두드린다. 함께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단다' 찾고 '매매' 살필 계획이다.

문의 : 부전1동(605-6515)

부산시새마을회 백옥자 회장 부산진구장학회에 1000만 원

부산광역시새마을회 백옥자(명륜상사 대표·사진) 회장이 최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부산진구장학회에 장학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백옥자 회장은 1996년 장학회 출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기탁한 바 있다. 특히 백 회장은 동 새마을부녀회장부터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면서 꾸준한 기탁과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백옥자 회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나라의 보배가 되고 큰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 (재)부산진구장학회(802-6469)

중식봉사연합회 부산진구지부 2026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부산광역시 중식봉사연합 부산진구지부(회장 한상인)는 4월 7일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산진구지부 회원들은 이번 '중식 나눔 행사'에서 7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상인 회장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605-4412)



부산진구새마을회,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부산진구새마을회(회장 최비결)는 4월 16일 오후 3시 부산도시청도 서면역 7번 출구 일원에서 새마을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문의 : 행정자치과 구민협력계(605-4852)

부산진구립 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감동'

피오레여성합창단 장애인 시설 공연 정서적 위로와 문화 향유 확대 효과

부산진구립 피오레여성합창단은 지난 3월 26일 부산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합창 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피오레여성합창단이 지역 내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문화예술 나눔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정서

적 위로와 더불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이다.

이날 피오레여성합창단은 '꽃밭에서' '맘마미아 메들리' 등 친숙한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설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시설 이용자분들께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화 나눔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를 통해 구민 모두가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1)



화환 대신 라면 받은 교덕현대민화연구소 "이웃에 써 달라"며 부산진구에 기탁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 단체가 전시회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라면을 구에 기탁, 훈훈함을 전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양정동에 있는 교덕현대민화연구소(대표 고향숙)이다.

연구소는 4월 17일 부산진구에 라면 40박스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최근 개최한 회원전시회인 '제3회 교덕현대민화테마전-국보 도자기 민화의 색으로 피어나다'전에서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그것을 구청에 전달한 것이다. 전시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청에서 열린 데 이어 13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렸다.

교덕현대민화연구소 고향숙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계(605-4355)



전포종합복지관-밝은눈안과 '우리동네 어르신 안과 검진'

전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영석)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밝은눈안과병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어르신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을 펼쳤다.

이번 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안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밝은눈안과병원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이날 검진에서는 백내장 유무검사,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노년기 안과 질환 예방과 눈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됐다.

검진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눈이 불편해도 선뜻 병원에 가기 어려웠는데 가까운 복지관에서 검진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한 건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서관 소식

부산진구, 동의대역 내 '스마트도서관' 개관

신간 인기도서 500권 비치, 무인 대출·반납 가능

부산진구는 4월 15일 도시철도 동의대역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부산진구 동의대역 스마트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무인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서관 방문 없이도 지하철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

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치 도서 : 신간 및 인기도서 약 500권
- 대출 기간 : 1인당 최대 3권 대출일 포함 15일
- 이용 대상 : 부산시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증인 '책이음 회원증' 소지자
※ 책이음 회원증은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당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방문 시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 회원증은 부산도서관포털 또는 부



산진구통합도서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문의 :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계(605-6272)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안내

부산진구 공공도서관에서 구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당감
도서관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별 수강 신청 페이지 큐알코드

■ 아동친화 15분 도시 맘껏놀자 수강생 모집(부산진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프로그램명	운영장소	운영기간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아동친화 15분 도시 맘껏놀자	기적의도서관	5.13.~6.24.(수) 16:20~17:50 [6회]	초등3~4학년 12명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신체 놀이 프로그램	4.29.(수) 10:00~	605-875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6.7.~7.12.(일) 10:00~12:00 [6회]	유아5~7세 20명		5.26.(화) 10:00~	605-5801
	당감도서관	6.7.~7.12.(일) 10:30~11:20 [6회]	초등2~3학년 12명		5.19.(화) 10:00~	605-8763

보건소 소식

부산진구보건소, 2026년 건강도시학교 수강생 모집

'으랏차차 백세활력 건강교실' 운영

부산진구보건소(보건소장 이경조)는 오는 6월 10일부터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한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도시를 의미한다(WHO, 2004).

건강도시학교는 주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까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8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척추건강, 눈건강, 올바른 걷기 실습, 웃음치료, 응급대처방안, 치매예방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전화번호(051-605-5961)로 신청하면 된다.

2026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강도시학교

- 장 소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3층 보건교육장)
- 운영내용 척추건강, 눈건강, 올바른 걷기실습, 웃음치료, 영양, 응급시 대처방안, 치매예방,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10:00 ~ 11:00**
- 운영기간 **6~7월(8주)**
- 참여대상 관내 관심있는 지역주민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직접방문(디지털헬스케어실 간호사)
- 신청기간 4월~5월

수업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051) 605-5961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벚꽃문화축제 건강부스 운영

부산진구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월 28일 개금2동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한 '벚꽃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상담 부스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및 스트레스검사, 운동 상담과 함께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알리기 위

한 홍보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알게 되었다. 건강측정과 상담을 통해 나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부산진구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측정 및 상담, 건강프로그램, 건강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문의 :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605-6693)

부산진구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 확대

부산진구는 4월부터 부전동, 전포동, 범천1동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부전동, 전포동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6년 범천1동까지 확대하여 추진됩니다. 커피박은 커피공에서 커피를 추출한 뒤 남는 부산물로, 그동안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커피전문점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9시부터 21시 사이에 투명한 봉투에 커피박만 담아 가게 앞에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이를 수거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부전동 전포동 범천1동 소재 커피전문점
- 참여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접수(051-605-4469)
※ 별도 신청 없이도 배출 가능(수거 누락 방지를 위해 가급적 신청 요망)
- 배출방법 : 투명한 비닐봉투에 커피박만 담아 가게 앞 배출
- 배출일시 : 주3회(월, 수, 금) 19 : 00 ~ 21 : 00
- 전화문의 : 부산진구 자원순환과(051-605-4469, 4452)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발급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도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번호판으로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부산진구는 구민들의 사용신고 시에는 전국번호판을 발급하고, 변경신고 시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명이 표시된 기존 지역번호판 대신 전국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등록 차량은 현재 사용 중인 지역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희망 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신규 번호판은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크기를 확대하고 반사 성능을 강화해 주야간 번호 식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 번호판에 표시되는 지역명을 삭제하고, 번호판 글자색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했습니다. 번호판 디자인도 10개 중에서 1개를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605-4656)



부산콘서트홀, '가정의 달' 5월 공연 일정

일시	공연명	내용	연주자·출연진
5월 1일 오후 5시	디즈니 인 콘서트 (패밀리콘서트)	겨울왕국, 모아나, 라퐁젤, 라이온킹, 알라딘 등 주제곡	디토오케스트라, 이수빈 신은총 등 뮤지컬배우 다수 출연
5월 2일 오후 7시30분	제1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묘약' 등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오충근), 베이스바리톤 사무엘윤, 소프라노 박소영
5월 3일 오후 2시, 6시	케이팝 데몬헌터스 OST 콘서트	세계적 히트작애니메이션 OST 전곡 오케스트라 초연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 외 솔리스트 다수
5월 5일 오후 3시	디즈니, 픽사&드림웍스 OST 콘서트	미녀와 야수, 포카혼타스, 물란 등 다수 애니메이션 주제곡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색소포니스트 김철운, 피아니스트 오준하 등
5월 9일 오후 5시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7번,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2~4번	임윤찬
5월 12일 오후 7시30분	소프라노 박정화 초청독창회	바흐 요한 수난곡, 멘델스존 '남쪽을 향해' 등	박정화, 피아노 정은정, 바이올린 이진, 플루트 유주영
5월 13~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HELLO오페라 '마에스트로'	'강강' '밤의 여왕 아리아' '여자의 마음' 등 파이프 오르간 연주 감상 기회	클래식부산오케스트라(지휘 정찬민, 객원악장 이영현), 소프라노 권소라 강주희 등
5월 20일 오전 11시	HELLO 오르간1 'Singing Space'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레 미제라블 중 'I dreamed a dream' 등	오르가니스트 박준병, 뮤지컬 배우 윤형렬, 박혜민
5월 28일 오후 7시30분	부산시립합창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브리튼 war Requiem'- 대규모 편성, 부산 초연	광주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5월 29일 오후 7시30분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베토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D장조' 등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피아노 김선옥
5월 30일 오후 2시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FESTA	인생의 회전목마, 너를 태우고, 주토피아, 라이온킹 등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컬 이희주, 바이올린 조아영, 마림바 김하영 등

○공연 일정은 연주자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세 내용 및 예매 : 부산콘서트홀 홈페이지(<https://classicbusan.busan.go.kr/>)

국립부산국악원, '가정의 달' 5월 공연 일정

일시	공연명	내용	연주자·출연진
5월 2일 오후 7시	육지용 대금 독주회 'Sequence III-淸'	청성자진한입, 수제천, 평조 단회상 등	아쟁 김대식, 해금 석지영 등 다수
5월 5일 11시, 오후 3시	무장애 가족음악극 '뫼지 뫼밭'	5월 가정의달 기념연극 &음악 총체극	아주특별한예술마을
5월 8일 오후 5시	꿈꾸는 아리랑 鄉愁	승천무, 피란수도, 창작무(그리움) 등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5월 10일 오후 4시	Re:Sanjo, 또 다른 무(舞)격(格)	강태홍 가야금산조에 춤을 엮은 창작무	윤여숙 무용단, 김은경, 김민경 등
5월 29일 오후 7시30분 5월 30일 오후 3시	2026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蝶(접)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중심으로 빛은 평화 염원 전통 춤사위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북미경)

○공연 일정은 연주자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세 내용 및 예매 :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https://busan.gugak.go.kr/>)

(사) 부산불교문인협회부설

실상문학대학 수강생 모집

시인, 수필가 등단의

시인, 수필가 등단의

강의명	강의일시 (오후 2시 ~ 4시)	강사	약력
시(詩) 창작	매주 목요일	강민수	시인, 문학평론가
수필	매주 월요일	박희선	수필가, 문학평론가
일상의 인문학과 글쓰기	매주 화요일	차정연	시인, 수필가, 이학박사
통섭(通攝)의 길	매주 금요일	성흥영	시인, 통섭문학 연구회 회장

수강료 : 3개월 100,000원 | 위치 :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드타워 717호 | 문의 : 010-3800-3139

백양산 애진봉 철쭉 사진 /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부산진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사진공모전'과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사진 공모전'은 전국 사진 애호가와 부산진구 구민을 대상으로 백양산 애진봉에 만개한 철쭉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공모합니다. 또한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은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진구의 다양한 모습을 주제로 한 글과 그림 작품을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5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작품 수 제한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부산진구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사진 공모전

부산진구의 매력을 자연과 사진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
"2026 부산진구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애호가 및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방법
작품주제 백양산 애진봉에 활짝핀 철쭉꽃의 아름다운 모습, 부산진구 명소
작품접수 2026년 5월 4일(월) ~ 5월 15일(금) ▶ 우편접수는 2026년 5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가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및 부산진구 구민
작품규격 11"×14" 칼라 참가비 무료 출품수 제한없음
출품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작품뒷면에 출품표(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부착
출품장소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예술계(9층) ☎ Tel. 051-605-4631
심사일시 2026년 5월 26일(화) 심사표표 2026년 5월 29일(금)
시상식 2026년 6월 15일(월) 전시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시상 및 전시장소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시상내역
 금상 1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은상 2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250,000원
 동상 3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100,000원
 가작 4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도서상품권 50,000원
 입선 30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작품접수에 따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수상작(입선 이상)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본 사진공모전의 입선,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 두며 타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음
 • 입상작은 심사발표 후 디지털 및 필름 원판을 2일 이내 CD로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을 취소함
 • 합성사진으로 입상이 된 경우 상권 취소 및 시상금은 반환함

주최·주관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 후원 busanjin, 부산일보 사진동우회, 영광서서, Canon

2026 부산진구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우리 동네, 부산진구
그안의 따뜻한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주세요'

응모방법
작품주제 백양산, 애진봉, 철쭉꽃, 부산진구의 여러가지 모습 중 택 1
작품접수 2026년 5월 4일(월) ~ 5월 15일(금) ▶ 우편접수는 2026년 5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가자격 부산진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부산진구 소재 학교 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직장인
작품규격 그림: 10호 이내(53x45cm) / 수채화: 4절 이내(45x33cm)
 글: 시, 수필, 콩트, 동화 >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A4 가능)
참가비 무료 출품수 제한없음
출품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작품뒷면에 출품표(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학교·학번(학생) 반드시 기재) 부착
출품장소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예술계(9층) ☎ Tel. 051-605-4631
심사일시 2026년 5월 26일(화) 심사표표 2026년 5월 29일(금)
시상식 2026년 6월 15일(월) 전시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시상 및 전시장소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시상내역
 금상 2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150,000원
 은상 4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100,000원
 동상 4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50,000원
 가작 10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 및 각 상금 30,000원
 특선-입선 00점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장 상장(작품 접수에 따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수상작(가작 이상)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주최·주관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 후원 busanjin, 부산문인협회, 부산시립미술관, 영광서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부산진구는 2026년 4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부과·체납 내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문의 : 세무1과 세무관리계(605-4506)

1.알림문자 → 2.본인인증 → 3.전자문서 열람 → 4.간편결제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 무료 상담·신청

***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부모님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지원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

✓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케어링에서 상담받고 국가지원받으세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념,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게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담 1522-6585**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시간
신규자반 262기 (320시간)	6/8~7/17 (실습 7/20~7/31)	월~금 09:20~17:50
간호(조무)사 77기 (토/일)	5/9~5/24 (실습 5/31)	토 13:00~18:50 일 09:20~17:50
사회복지사 126기 (토/일)	5/9~5/24 (실습 5/30)	토 12:30~18:30 일 09:00~17:30

▶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가능
▶ 시험일: 현장실습 이후 7일 이내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정

▷ 부산시 인가 제1호 요양보호사교육원 ▷ 한 번 등록하면 시험 합격 때까지 개별 도움
▷ 컴퓨터 시험 어려운 분 개별지도 ▷ (사)정암100세누리취업센터 운영 (무료 취업지원)
▷ 공부 안되는 분 개별 보충지도(비용 없음)

정암요양보호사교육원 ☎ 868-3411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부산시청 옆)

2026 부산진문화원 상반기 문화탐방

- 탐방일자 : 5. 13.(수) 07:00~19:00
- 탐방지 : 경북 영주 일원 (용마루공원-용천루, 출렁다리, 전망대 등)
(무섬마을-40여 가구의 조선시대 전통가옥)
- 참가대상 및 참가비 : 문화원 회원(5만 원), 일반 구민(6만 원)
- 접수기간 : 4. 20.(월)~4. 30.(목)
(간식, 입장료, 점심식사, 보험 등 제공. 5. 1.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접수장소 : 부산진문화원 사무국 및 전화접수(선착순 200명)
※ 답사지는 시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 부산진문화원 817-9648, 9650



2026년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 신청기간 : 4. 3.(금)~4. 30.(목) ● 운영기간 : 5. ~8.(기간 내 30회)
- 수업일시 : 매주 월, 금 10:30~11:30
- 모집대상 : 부산진구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 신청정원 : 15명 / 운영종목 : 요가
- 운영장소 :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
- 접수방법
①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상단 메뉴→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오늘 나를 위한 요가” 신청
③ 문의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817-4313
부산진구체육회 051-804-9898

부산진구 환경 사랑 탄소중립 실천 그림 공모전

- 공모주제 : 올 상반기 부산에서 펼쳐진 공연 경기 거리응원전 등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그림
- 공모기간 : 5. 1.~5. 15. ● 공모대상 : 중·고생 및 청소년, 시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sma614@korea.kr)
- 결과발표 : 우수작 31점 선정 후 5월 넷째 주 개별 연락
- 문의 :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기후대응계(051-605-4382)

(재)부산진문화재단 ‘K-POP 랩 메이킹’ 참가자 모집

(재)부산진문화재단은 2026년 백양문화예술회관 상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 ‘K-POP 랩 메이킹(래퍼에게 배우는 래퍼가 되는 방법)’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아이브 등 다수의 아이돌 및 아티스트를 트레이닝한 랩 트레이너 고은 씨가 강사로 참여해, 작사·리듬 구성·발성·무대 표현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4회차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며, 수강료는 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부산진문화재단 예술지원팀(051-926-004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백양문화예술회관 2026 상반기 busanjin bjs 부산진문화재단 백양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Part 1

K-POP 랩 메이킹

래퍼에게 배우는 래퍼가 되는 방법

수강생 모집 2026. 4. 10. 13일~ 모집 마감까지! 연락은!!

K-POP 랩 메이킹	대상	청소년 15명(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래퍼에게 배우는 래퍼가 되는 방법	교육기간	2026. 4. 30.(목) ~ 5. 21.(목) 매주 목요일 18:00-20:00 총 4회차
	수강료	20,000원
	문의	051-806-0016

※ 수업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하기**

☞ 법률상담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상속 포기 시 임대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나요?

Q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중 B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힘들게 B씨의 상속인을 찾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B씨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임대인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관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분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인 각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승계되는데, 만일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

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차인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등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씨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A씨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을 대표변호사)

■ 특별칼럼

전포동은 성공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않았다



1. 지난해 10월 열린 2025 전포커피축제. 2. 전포커피거리의 골목 풍경. 3. 전포사잇길의 평일 낮 한산한 모습.

부산의 '핫플'을 이야기할 때 전포동을 빼놓기 어렵다.

이곳은 더 이상 카페 몇 곳이 모인 거리가 아니다. 골목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된 공간이다.

전포동에서는 목적지를 정해둘 필요가 없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이어진다. 낡은 공구상 옆에 감각적인 카페가 자리하고, 오래된 건물은 새로운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간판 하나, 벽 하나까지도 콘텐츠가 된다.

이곳에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 걷고, 발견하고, 머무는 과정 자체가 경험이 된다.

전포동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골목의 시작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2010년 즈음이다. 신문사에서 '주말 특별판'을 맡고 있던 시절, 전포동의 작은 카페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 지금처럼 사람이 몰리기 전, 골목에는 이름도 낯선 몇몇 공간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브라우니와 진한 커피가 잘 어울렸던 살롱루이, 제대로 된 커피를 내리던 애드오그램, 작지만 운치 있던 프롭나드 같은 작은 카페들이었다.

당시 전포동은 핫플과는 거리가 멀었다. 간판은 크지 않았고, 골목은 조용했다. 대신 공간 하나하나에 뚜렷한 개성이 있었다. 알음알음 찾아온 사람들, 이른바 마니아들이 이 골목을 공유하듯 드나들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이 몰리기 전, 이미 골목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다.

이 지점에서 전포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도시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만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경험으로 전환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포동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해석'으로 살아난 공간이다.

전포동의 변화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비

간판 하나, 벽 하나까지도 콘텐츠
단순한 골목 넘어선 '경험의 공간'
재개발 아닌 재해석이 성공 비결
외부로 확산되며 개성 상실 우려
상업·획일화 극복할 방향성 찾길



방식도 함께 달라졌다. 전포동을 찾는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골목을 걷고, 카페를 하나 들르고, 다시 이동한다. 공간은 더 이상 체류의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며 소비하는 경험으로 바뀐다. 전포동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이어진 장면들의 연속으로 소비된다.

이 골목은 더 이상 안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바깥으로 퍼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내부는 충분히 채워져 있고, 그 방식과 분위기가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퍼지는 순간, 전포동다움 또한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카페가 몰려난 자리에 식당과 술집 등이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낯설지 않다. 다른 도시의 핫플레이스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개성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후 상업화가 진행되며 점차 획일화된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일 수는 있지만,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전포동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성공한 공간이지만,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골목의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 골목에서는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기 시작한다. 유사한 간판과 메뉴가 늘어나고, 처음 이곳을 채웠던 낯선 감각은 점점 열려진다. 속도가 붙은 상업화는 공간을 평평하게 만든다.

비슷한 가게가 늘어나는 골목은 오래가지 않는다. 전포동이 전포동으로 남으려면, 서로 다른 가게가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창업자와 개성 있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임대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다. 단기적인 상권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콘텐츠 유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규제도 공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 골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흐름을 유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업종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균형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전포동의 가치는 특정 형태를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각 공간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있다.

전포동에는 이미 상인회와 협의체가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참여에 그친 구조로는 골목 전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조직의 유무가 아니라, 작동의 문제다.

이 골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전포동은 이미 성공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않았다.

안인석(언론인)



구해인의

그 길 에 세 이

미술작가·시인

그 여름의 온기

어느 날부터 아파트로 들어가는 지그재그 길 끝, 펜스 옆이 허전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녀석이 보이지 않자 풍경이 어딘가 조금 달라진 듯했다. 그 길을 지날 때면 아직도 습관처럼 펜스를 바라본다. 이제 그 자리에 녀석은 없지만, 햇살 드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그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었다. 계절마다 풀이 자라고, 비가 오면 흙냄새가 은근히 피어올랐다. 어느 겨울날, 펜스 바깥 마른 풀 사이에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지나가며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 둥근 얼굴에 도톰한 볼, 보송한 회색 털. 하지만 눈빛에는 낯선 거리의 경계가 어려 있었다. 그렇게 가끔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이름을 지어주었다. 고양이 동의를 모르지만, 뚱한 표정 때문에 처음엔 ‘똥찌’라 불렀다.

한동안 ‘똥찌’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여름, 녀석이 아래쪽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다른 출입문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가방에 츄르를 넣어 다녔다. 녀석을 만나면 살짝 찌서 놓아두었고, 그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그러다 이웃 두 분이 녀석에게 밥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분들은 녀석을 ‘진아’와 ‘옹이’라고 불렀다. ‘옹이’라는 이름은 ‘야옹이’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녀석이 햇갈리지 않게 우리는 ‘옹이’로 부르기로 했다.

옹이는 우리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다.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옹



안녕 옹이 ©구해인

이의 일상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게 됐다. 오늘 옹이를 봤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부처럼 묻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됐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이분들이 옹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 장면이 어찌나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고양이 한 마리가 스쳐 지나기만 하던 이웃들이 이루어주고 있었다.

옹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녀석은 거의 오후 서너 시쯤 나타나 어두워질 때까지 펜스 밖에 머물렀다. 거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옹이가 와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옹이를 바라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츄르를 먹고 나서도 곁을 맴돌며 다리에 몸을 부비곤 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윤기 나는 털을 쓰다듬으며 사랑받는 고양이, 착한 고양이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가끔 옹이가 보이지 않을 때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강아지처럼 달려오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세 사람이 부를 때만 펜스 밖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다. 녀석은 우리를 신뢰하

고 있었다. 옹이는 내 옆에 기대 잠시 머물렀다. 그렇게 여름이 깊어지듯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름은 길지 않았다. 바람이 서늘해지자 우리는 옹이의 겨울나기를 걱정하게 됐다. 겨울은 길고양이에게 쉽지 않은 계절이다. 결국 한 이웃이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며칠 뒤 옹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곳을 떠났다.

옹이를 떠나보낸 뒤에도 나는 여전히 길 위의 고양이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구청 후문 담장 아래에는 오래된 박스로 만든 길고양이 집들이 놓여 있다. 몇 해째 비바람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라해 보여도 누군가의 손길로 덧대어져 그대로 남아 있다. 담장에는 구청에서 내건, 길고양이를 해치지 말라는 현수막도 붙어 있다. 그 마음이 고맙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곁의 작은 생명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 여름의 온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 길의 펜스를 한 번 더 바라본다.

포토 에세이

언덕위의 집

어릴 때 복닥복닥 사람 살던 집이었다. 죄다 어디로 떠나고 문짝 하나 성한 게 없다. 마당도 길도 밭으로 변하고 소먹이 호밀만 푸르게 자란다.

확자하게 뛰어놀던 언덕배기 빈집이 노을에 잠긴다. 상처 같은 풍경도 오늘은 아름답다. 세월이 가면 아픈 기억도 추억이 되듯이.

봄의 끝자락에 다녀온 고향의 한 풍경. 사람 살던 집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언제부턴가 주변을 정리하고 소먹이 호밀을 심고 있다. ‘호밀밭과 빈집’ 풍경이 아름다워 이맘때 고향에 가면 찾던 곳이기도 하다. 어디 이 집뿐이라 사람 사는 집보다 빈집이 많은 농촌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무현(사진가)

